

“정부 요직에 호남사람 적극 추천하겠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광주일보 인터뷰

광주 광산, 나주·장성서 7·30 재보선 지원 유세

“호남 사랑” 한길, 이정현 후보 좋은 결과 나올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된 만큼 호남의 여러 사람들을 적극 추천해 박근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현 정부(새누리당)에 대한 호남의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 정당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생각해서 포기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결정이고, 두 정당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재보선 호남 전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불모지인 광주·전남 4곳의 재보선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고,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순천·곡성지역 선거구의 ‘이정현 바람’과 관련, “이정현 후보의 한길 같은 ‘호남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지역민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군과 나주를 잇따라 돌며 송환기(광주 광산), 김종우(나주·화순), 이종호(영광·함평·장성·담양)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호남지역 지원유세를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광주시 광산구 선관위는 이번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영화관, 할인마트, 커피숍 등 다양한 민간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투표 확인증 또는 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각종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첨단 CGV, 하나로를 비롯해 광주수원점 등 광산구 3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입장권 할인과 기념품 증정 등 참여 업체마다 다양한 투표 참여 우대행사를 펼치게 된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 박인선 사무국장은 “이번 투표참여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 없이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영업활동 및 판매촉진 목적으로 참여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꼭 투표하고 민간업체의 투표 참여자 할인혜택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 선관위는 또 23일 오후 수안 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퓨전국악과 전자 바이올린 등 7개의 공연팀이 참여하는 ‘투표 응원 야외음악회’와 함께 퀴즈 이벤트, 선거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아권연대를 하려면 처음부터 단일후보를 내거나 합당할 것이지, 선거 중간 결과를 보고 상대 후보를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해 연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권연대는 정당을 스스로가 약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당이 먼저 선거를 포기했다고 하니 이제 유권자들이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재보선 호남 전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불모지인 광주·전남 4곳의 재보선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고,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순천·곡성지역 선거구의 ‘이정현 바람’과 관련, “이정현 후보의 한길 같은 ‘호남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지역민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군과 나주를 잇따라 돌며 송환기(광주 광산), 김종우(나주·화순), 이종호(영광·함평·장성·담양)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호남지역 지원유세를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광주시 광산구 선관위는 이번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영화관, 할인마트, 커피숍 등 다양한 민간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투표 확인증 또는 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각종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첨단 CGV, 하나로를 비롯해 광주수원점 등 광산구 3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입장권 할인과 기념품 증정 등 참여 업체마다 다양한 투표 참여 우대행사를 펼치게 된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 박인선 사무국장은 “이번 투표참여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 없이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영업활동 및 판매촉진 목적으로 참여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꼭 투표하고 민간업체의 투표 참여자 할인혜택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 선관위는 또 23일 오후 수안 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퓨전국악과 전자 바이올린 등 7개의 공연팀이 참여하는 ‘투표 응원 야외음악회’와 함께 퀴즈 이벤트, 선거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아권연대를 하려면 처음부터 단일후보를 내거나 합당할 것이지, 선거 중간 결과를 보고 상대 후보를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해 연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권연대는 정당을 스스로가 약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당이 먼저 선거를 포기했다고 하니 이제 유권자들이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군과 나주를 잇따라 돌며 송환기(광주 광산), 김종우(나주·화순), 이종호(영광·함평·장성·담양)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호남지역 지원유세를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광주시 광산구 선관위는 이번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영화관, 할인마트, 커피숍 등 다양한 민간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투표 확인증 또는 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각종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첨단 CGV, 하나로를 비롯해 광주수원점 등 광산구 3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입장권 할인과 기념품 증정 등 참여 업체마다 다양한 투표 참여 우대행사를 펼치게 된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 박인선 사무국장은 “이번 투표참여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 없이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영업활동 및 판매촉진 목적으로 참여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꼭 투표하고 민간업체의 투표 참여자 할인혜택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 선관위는 또 23일 오후 수안 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퓨전국악과 전자 바이올린 등 7개의 공연팀이 참여하는 ‘투표 응원 야외음악회’와 함께 퀴즈 이벤트, 선거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아권연대를 하려면 처음부터 단일후보를 내거나 합당할 것이지, 선거 중간 결과를 보고 상대 후보를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해 연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권연대는 정당을 스스로가 약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당이 먼저 선거를 포기했다고 하니 이제 유권자들이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투표참여로 할인 받고 사은품 챙기세요”

재보선 해당 선관위, 투표율 올리기 이벤트

인증샷 제시하면 영화관·할인마트 등 우대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해당 선관위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재보선 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에 그친다는 점 때문에 각 선관위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며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선관위는 이번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영화관, 할인마트, 커피숍 등 다양한 민간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투표 확인증 또는 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각종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현재까지 첨단 CGV, 하나로를 비롯해 광주수원점 등 광산구 3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입장권 할인과 기념품 증정 등 참여 업체마다 다양한 투표 참여 우대행사를 펼치게 된다.

광주 광산구 선관위 박인선 사무국장은 “이번 투표참여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 없이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영업활동 및 판매촉진 목적으로 참여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꼭 투표하고 민간업체의 투표 참여자 할인혜택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 선관위는 또 23일 오후 수안 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퓨전국악과 전자 바이올린 등 7개의 공연팀이 참여하는 ‘투표 응원 야외음악회’와 함께 퀴즈 이벤트, 선거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아권연대를 하려면 처음부터 단일후보를 내거나 합당할 것이지, 선거 중간 결과를 보고 상대 후보를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해 연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권연대는 정당을 스스로가 약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당이 먼저 선거를 포기했다고 하니 이제 유권자들이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합친다고 해도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막바지 야권연대는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당 후보 찍어달라”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장성 황룡시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출마한 이종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총리 “추석선물·학교급식 진도 농수산물 권장”

세월호 참사 100일째 진도 방문...“내달 범국민위원회 발족”

정총리 24일 진도군청을 찾았다. 이날 정 총리는 진도군수·진도군의회의장·진도군 관광협회회장 등과 함께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정 총리는 이날 “그동안 어업인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해 왔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다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

이 마련되겠지만, 그에 앞서 우선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노력들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 추석선물 등을 구매할 때 진도산 농수특산품을 이용하고, 정부청사 구내식당과 학교 급식에 진도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해 경제단체에 진도산 농수산물 구매를 요청하고 정부부처 등의 관련행사도 가능하면 진도지

역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진도산 농수특산물 홍보·관측을 위해 서울, 과천, 세종, 대전에 있는 4개 정부청사에서 진도 농수산물 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진도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는 직접 참석해 농수산물 홍보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가장 중요한 안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적폐, 부정부패를 씻어내 이번엔야말로 제대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범국민위원회를 다음달 중 발족해 국민의 참여, 관심, 지혜가 결집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최악의 사고에 위로조차 어려워 고통이 위로할 말을 생각했다”며 “내 자녀, 가족이 몸을 바쳐서 세상을 바꿨다고 위안을 삼아달라”고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해체를 앞둔 해경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7·30 재보선 브리핑

신정훈 “현정부 심판...사전투표 참여해달라”

신정훈 나주·화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4일 나주 목사고을 시장을 찾아 “박근혜 정부 심판을 위해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후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됐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들이 그토록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민주주의와 농민의 생존권, 지방분권을 위해 뛰어난 농민의 아들 신정훈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달라”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정희 “장원섭 후보 지지해달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광주에서 진보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정권을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가장 모진 탄압을 받고 있는 진보당의 한 석은 ‘광주도 변할 수 있다’, ‘희망은 있다’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광주 광산을 장원섭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 박근혜 정권과 맞설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 집 담보도
- 상가 담보도
- 전세보증금 담보도
-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립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전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의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성층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